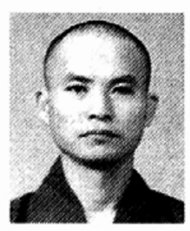
사·부·대·중

어제도 오늘도 '불사中'


혜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계획이 어떻게 될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요즘 절중 불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도시 절이나 산중 절이나 365일 불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불자라면 누가 불사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 잡겠는가. 문제는 불사 내용이다.

우리 불교계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사회복지와 교육불사다. 가장 절실히 종단과 사회가 요구하는 불사를 외면하고 있기에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모든 스님들과 절에서 불교가 요구하는 이러한 불사를 안한다는 뜻은 아니다. 복지나 문화 분야에서 각기 소임을 다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나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생각할 점이 더 많다.

지난 윤달에 삼사 순례를 다녀왔는데 가는 절마다 불사중이었고 한결같이 기와 불사였다. 이번 만이 아니라 이제껏 방생이나 성지순례 갈 때마다 똑같이 몇 년째 하고 있었다. 어느 신도가 물었다. "스님, 가는 곳마다 기와불사를 하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당우를 얼마나 짓는 것입니까?"

나는 기와 지붕은 태풍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또한 산중이라 겨울에 동파가 나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초가 되면 도반은 물론이고 문중 절이나 유수한 사찰에서 서로와 달라고 편지와 함께 팜플렛을 보내온다. 이제 우리 불교도 먼 미래를 보면서 사회 속에서 중생과 함께 성장하는 불사를 수행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목탁소리

신도만의 잘못일까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19일 저녁, 관심을 끄는 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기복불교.'

'기복불교' 문제는 그동안 한국불교의 발전을 가로막은 대표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사찰이나 불자들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기복불교를 극복해야만 한국불교가 제대로 길을 갈 것이라고 누구나 말은 하고 있었지만 기복불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거나 명쾌한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날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는 "기복불교 자체를 무조건 터부시하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복락에 대한 분출이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한다"면서 "기복행위의 방편즉, 올바로 복을 짓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복짓는 일들을 망라, '복 채점표'를 만들어 이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불자들의 기복행위를 올바로 이끌어 불교적 이상에 걸맞는 복짓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효과적인 방편으로 기복을 올바르게 이끌고, 불교를 바로 세우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제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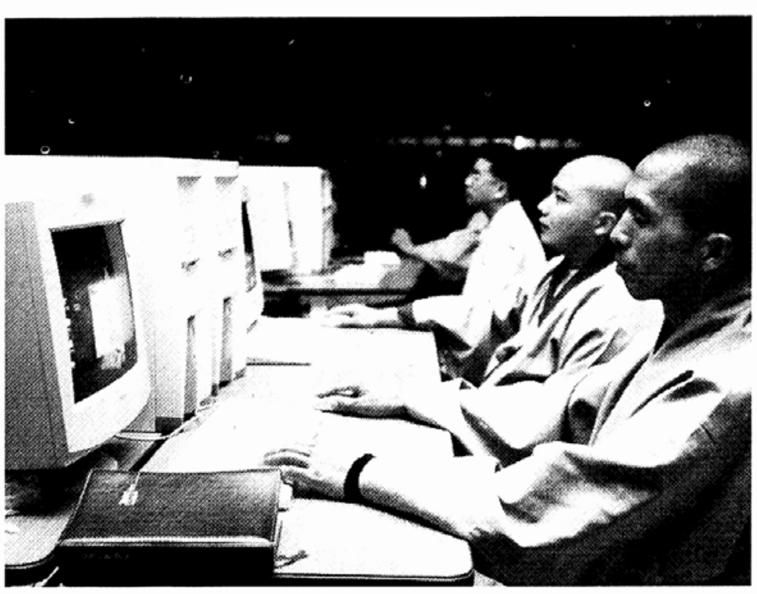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자들 신행이 기복화되어 있다는 지적은 제대로 본 것일 것이다. 문제는 이를 바로잡고 정법을 가르쳐야 할 사찰의 스님들중 일부가 오히려 기복을 조장하거나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찰신도들 대부분은 스님의 지도력에 따라 좌우되며 신행모습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도들을 바르게 정법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신도들은 반드시 변화한다. 중생의 나약한 마음을 이용해 사찰의 재정을 늘이거나 신도들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기복을 부추기는 타성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어쨌거나 종단이나 학계에서 기복신앙 문제를 방치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기복불교가 나쁘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덕불교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사찰 · 단체 인터넷 포교 어디까지 왔나

2백여곳 사이트운영…관리소홀 '네티즌 외면'

불교계 사찰 단체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200여개에 이르렀지만 관리 소홀로 네티즌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 대다수 홈페이지들이 화려한 데뷔 후 관리 소홀, 기술력 부재, 전담인원 미비, 자금 문제 등으로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 "작년에 본 모습이나, 오늘 본 모습이나 골동품이 전시된 박물관 같은 느낌"이라는 어느 네티즌의 따끔한 일침은 불교계 사찰 및 단체 홈페이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부 사찰 · 불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관리소홀로 네티즌들의 외면을 받고있다. 사진은전산교육을 받고 있는 스님들.

대표적인 검색엔진 엠파스와 야후 코리아에서 교차 검색한 결과 사찰 홈페이지는 130여개, 불교 단체 홈페이지는 70여개로 나타났다. 몇 년 전 달마넷에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를 꾸민 이후 인터넷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사찰 ·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포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숫자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들은 몇몇 곳을 빼고는 관리능력, 디자인의 세련도 등이 타 사이트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조계종 본사급사찰 한마음선원 등 몇몇곳만 '모범적'

전문인력 양성 · 시설투자 등 절실

전문가들은 불교계 정보화 마인드의 부재를 근본적인 이유로 꼽는다. 교계 IT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설의 필요성에는 스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시설투자 분야로 들어가면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조계종의 경우 24개 교구 본사 중 17곳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홈페이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들답게 세련된 디자인과 방대한 정보, 활발한 게시판 운영 등이 돋보인다. 몇몇 사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행상담실 등을 운영, 신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열어 포교에 일익을 더하고 있다.

본사급 사찰들 외에도 한마음선원, 능인선원, 보리수선원, 불교정보센터, 참여불교 재가연대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게시판과 움직이는 쌍방향 네트워킹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한마음 선원은 인터넷 방송국과 커뮤니티, 웹 메일을 운영하는 등 인터넷을 포교의 최첨병으로 내세우며 네티즌들을 공략하고 있다.

벽공스님이 운영하는 마하선원 홈페이지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만 하다. 스님이 직접 매일 게시판을 체크하며 불교교리, 정진, 생활 등 전반에 걸친 상담에 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폰을 이용한 원격 인터넷 전화 참선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 세계를 운항하는 반야용선에 비유될 만한 페이지이다.

이렇듯 활발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 뒤에는 전담 관리자가 있다. 한마음선원은 아예 웹 쪽을 담당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다. 이들 홈페이지 전담 관리자들은 끊임없이 페이지를 점검하고 정보를 보강한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일부분이다. 아직까지 웹 팜플렛에 머물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훨씬 더 많다. 경기도 B사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근 공지사항이 지난해 겨울에 올린 것일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 게시판이나 방명록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신도들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

홈페이지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네티즌들의 에티켓 준수도 필수 요인이다. 익명제로 운영되는 게시판들에서는 삼보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악성루머와 정치적인 성향을 띤 삼보 비방, 이에 화답하는 원색적인 욕설들로 가득찬 게시판은 불자인가 의아심을 갖게 만들 정도다.

전체 사찰 1만3천5백여개(대한불교진흥원 98년 집계)와 84개의 불교법인(01년 문화관광부 집계), 천여개에 달하는 단체들에 비해 200여개 밖에 안되는 홈페이지 숫자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은 불교계의 홈페이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내실을 다져 인터넷 포교의 기반을 닦아야 할 때이다.

송광사에서는 얼마전 사중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전산 마인드가 약한 스님에게는 주지 임명도 하지 않겠다는 정보화 의지를 공표했다. 이처럼 본사급 사찰들이 앞장서 정보화 마인드를 키우고 인력을 양성하며 시설투자에 앞장설 때 말사를 비롯한 다른 불교계 홈페이지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해당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꾸준한 정보 제공을 통한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종립학교 홈페이지 '활발'

청담정보고-사이버강좌
대구 심인중-인터넷 신문
대전 보문중-인터넷 도서관

전국 27개 종립학교들은 21세기 고도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자율성 · 창조성 · 다양성을 추구하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대부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홈페이지들은 주로 학교소개, 학생커뮤니티, 학습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소개는 학교장 인사, 학교 현황, 공지사항 등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학교를 알리고 있다. 명성여고의 경우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인 1996년 학교 홈페이지를 제작해 지금까지 1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다.

학생커뮤니티는 특별활동 동아리, 학생자치활동, 동창회 방 등의 코너로 나누어져 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공간이다. 종립학교 홈페이지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코너가 바로 학습 자료실.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자료실에 올려놓고 학생들은 그 내용을 내려받아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는 컴퓨터 관련 사이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IT 뉴스, 컴퓨터 자격증 자료실 등을 운영해 실업고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대구 심인중와 대전 보문중학교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도서관을 별도의 홈페이지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논술지도는 물론 인성교육을 시키고 부산 금정중학교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E-mail을 통해 학생들의 인생, 진로, 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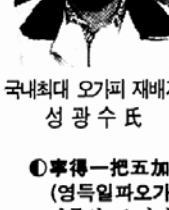
종립학교 홈페이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활발하게 운영되는 종립학교 홈페이지

동대부고	http://www.ddbk.net
명성여고	http://www.msong.hs.kr
진선여고	http://jinsun.hs.kr
정광고	http://www.jg.hs.kr
보문고	http://bomoon.cschool.net
광동여고	http://home.dreamx.net/kdghs
광동종고	http://kwangdong.hs.kr
금정중	http://school.kerinet.re.kr/kumjong-m
심인고	http://neungin.hs.kr
청담중	http://school.kerinet.re.kr/chongdam-m
청담정보통신고	http://www.ichungdam.net
심인중	http://neungin.ms.kr
홍제중	http://kyongnam.hongje.ms.kr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개원 인사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신도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몇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금번에 소납이 포교원력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에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이라는 교당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불지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신도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소개 있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특히 불지촌에서는 선기공 정각회의 활동으로 신도님의 건강상담에 주력하고자 하오니 많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일과표	문의처 02-3444-4376					
AM 10:30~AM 12:00 사 시 불 공						
역학 개인지도반 : 매일 오후 12시 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 사주정설 강좌와 관상학 강의						
오후 4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기수련강좌	역학강좌	선체조	범패강좌	선체조	다도법회
	月	火	水	木	金	土
건강상담개인지도 매일 3명으로 제한, 1개월 코스, 일주일에 3회 수련 지도 오전 9시~10시 30분 [1명] 오후 3시~4시 30분 [1명] 오후7시~8시반[1명]						
PM 6:30 ~ PM 7:00 저 녁 예 불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 126-6 4F TEL : 02-3444-4376
· 홈페이지 : WWW.BULLJICHON.COM 한글 도메인 주소 : 수산스님.COM
· 오시는 길 : 영동대교 입구와 청담사거리 사이 프리마 호텔 맞은편 조흥은행 골목길에 들어서면 불지촌이 보입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불 지 촌 주 지 배 수 산 합장